

난관수종(Hydrosalpinx)과 이의 수술적교정이 체외수정 시술시 임신율에 미치는 영향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송인옥, 궁미경, 이기훈, 연혜정,
백은찬, 손일표, 강인수, 전종영

체외수정 시술시 난관수종이 존재하는 경우 착상율과 임신율은 감소되고 자궁외임신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관수종과 그에대한 수술적 교정이 체외수정 시술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및 방법 : 1995년 5월부터 1996년 4월까지 본원 불임클리닉을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다른 불임요인과 복합되지않는 난관 불임환자 110명 중 난관수종이 없는 54명 (대조군), 난관수종으로 진단받은 35명 (난관수종군)과 체외수정 시술전에 난관수종을 수술적 방법으로 교정한 21명(교정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방법은 16명에서 salpingoneostomy, 5명에서 salpingectomy를 시행하였고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한 117 주기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 1. 체외수정시술을 시행한 대조군, 난관수종군, 교정군에서 환자나이는 각각 32.9 ± 0.4 세 (mean \pm SEM), 32.7 ± 0.6 세, 31.4 ± 0.6 세, 혈중 기저 난포자극호르몬치 (FSH)는 각각 7.1 ± 0.3 mIU/ml, 7.2 ± 0.3 mIU/ml, 7.0 ± 0.4 mIU/ml, HCG를 투여한 당일의 혈중 난포호르몬치 (E_2)는 각각 2674 ± 219 pg/ml, 3239 ± 304 pg/ml, 3376 ± 360 pg/ml, 채취한 난자 수는 각각 14.8 ± 1.3 , 15.5 ± 1.4 , 15.2 ± 2.0 이었고 이식한 배아 수는 5.1 ± 0.3 , 5.6 ± 0.3 , 5.4 ± 0.6 으로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임신율(clinical pregnancy rate)은 대조군, 난관수종군 및 교정군에서 각각 25.4% (15/59), 8.3% (3/36) 및 27.3% (6/22)로 교정군에서의 임신율이 난관수종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7$).

3 착상율은 대조군이 11.6% (35/302), 난관수종군이 2.0% (4/196), 교정군이 9.3% (11/118)로 난관수종군에서 대조군 및 교정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p=0.006$), 교정군과 대조군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4. 자궁외 임신율은 대조군이 1.7% (1/59), 난관수종군이 11.1% (4/36), 교정군은 4.5%(1/22)로 난관수종군이 교정군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론 : 이상의 결과에서 난관수종군은 난관수종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임신율과 착상율은 낮고 자궁외 임신율이 높으므로, 체외수정 시술전에 난관수종을 수술로 교정함으로써 대조군과 비슷한 정도의 착상율과 임신율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